

지난 7월에 열린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한 이 동문을 만나 성악을 직업으로 삼게된 과정과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R&D 예산 삭감 발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학교 연구비 수주 실적과 연구소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다.

대학주보

수시모집 경쟁률 23.9:1

김수현 기자 soo2023@khu.ac.kr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 총 70,847명이 지원, 2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23.5대 1에 비해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 서울캠이 26.9대 1, 국제캠이 2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형은 논술전형이었다. 양 캠퍼스에서 총 477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33,286명이 지원해 6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캠 한의예과(인문) 434.8대 1, 국제캠 체육학과가 118.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달라진 점은 서울캠 자율전공학부 정원 확대와 국제캠 자유전공학부 신설이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의 약 10%인 406명을 자율전공학부와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고 그중 자유전공학부는 총 241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87명으로, 자율전공학부와 달리 모두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로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한 인원은 총 1,893명으로 1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자율전공학부는 3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작년보다 약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다. 지난 3년간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대폭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학과 신설, 모집인원 및 명칭 변경 등이 이뤄졌다.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54명이 증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네오르네상스전형은 37명이 감소한 반면, 기회균형전형에서는 30명이 증가했다.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도 신설됐다. 생명과학대학 한방생명공학과와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가 통합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이 됐으며 공과대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 43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식 Peace BAR Festival · 미원평화상 제정

지난 20일 제43회 세계평화의 날 Peace BAR Festival · 제1회 미원평화상 수상자 발표 행사가 개최됐다. 해당 수상자는 '디 엘더스'다. '디 엘더스'는 세계적 지도자들로 구성된 독립/비영리 단체로서, 글로벌 문제 해결 · 인권 증진 · 평화 촉진을 위해 설립됐다.<관련기사 8면>

김수현 기자 soo2023@khu.ac.kr

자율 · 자유전공, 전공선택권 100% 보장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자율·자유전공학부, 즉 무전공제도 운영안이 확정됐다. 입학생 전공 선택권을 100% 보장하고, 학생설계 전공을 마련한다. 국제캠 자유전공학부엔 'PBL'(Project Based Learning) 중심 전공을 신설한다. 전공 탐색 지도를 위한 각종 학생 지원 체계도 정해졌다. 크로스리스팅, 수강신청 시스템 고도화 등 학사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캠 PBL 중심 전공 신설 “전공 선택권 100% 보장”

서울캠은 자율전공학부를 확대 편성하고 국제캠은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다. 모두 1학년이 끝나기 전 희망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각

캠퍼스 소속 전공만 택할 수 있다. 전공 선택권을 100% 보장해 전공별 인원 제한은 없다.

자율·자유전공학부 1학년은 공통 교육과정인 ‘교양+고유’ 커리큘럼을 거친다. 고유 커리큘럼은 미래교육1·2, 전공탐색1·2다. 1학년 1학기에는 미래교육1과 전공탐색1을, 1학년 2학기에는 미래교육2와 전공탐색2를 수강한다. 4과목 중 3과목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해 이를 이수한 학생만 전공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미래교육1·2는 AI 리터러시, 전환교육 및 현장문제해결, 리더십 역량 제고 등을 교육한다. 전공탐색1은 온라인 콘텐츠와 실시간 대면 강의를 섞어 진행하며 2는 온라인 콘텐츠 기반으로 토론과 상담을 진행한다. 전공탐색 수업 내용은 9월 중으로 출범할 교육혁신위원회 2기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전공 선택을 하지 못한 서울캠 학생은 글로벌리더, 글로벌비즈니스 전공 진학이 가능하다. 국제캠은 전공 선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비해 PBL 중심 전공 신설을 검토 중이다.

PBL 중심 전공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과제를 연구해 지식을 학습한다. 학무부 총장실 지승렬 과장은 “PBL은 교육 방법론 중 하나로, 프로젝트의 해결책을 찾아 결과물을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공을 못 찾을 경우를 대비해 개설할 예정”이라며 “신규 교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혁신사업단 이원구 단장은 “PBL 중심 전공은 기존 학생설계전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화한 버전”이라며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학

생 주도하에 맞춤형 강의 계획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체와 프로젝트를 하는 것만이 아닌 글로벌 이슈나 지역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라며 “UN에서 제정한 SDG와 ESG 주제를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산업체, 연구소, 병원 등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

사령

명 <정기자>
김수현(정치외교학 2023)
박서연(사각디자인학 2023)
손보민(미디어학 2024)
양현준
(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24)
정유현(정치외교학 2024)
최고훈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4)
최연우(미디어학 2023)
추찬호(철학 2021)